

16. 各種疾患에 있어서 Radioimmunoassay에 의한 HBsAg의 檢出率

Studies on HBsAg by Radioimmunoassay in Various Diseases

延世醫大 內科
康珍敬·崔興載
藥理學
柳京子

1965年 Blumberg가 Australia antigen(HBsAg)을 發見한 以來 HBsAg 檢出이 virus 肝炎의 病因, 臨牀 經過 및 診斷에 있어서 필수적인 重要的 檢査로 되어 있다.

HBsAg의 檢出方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二重免疫 擴散法 및 counterimmunoelectrophoresis 등은 檢査法이 간편하고 염가이어서 널리 利用되고 있으나 그 예민도가 낮은 短點이 있다. 反面에 radioimmunoassay는 그 예민도가 가장 높아서 double diffusion法의 1,000倍이나 그 檢査法이 복잡하고 高價이어서 그 利用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RIA에 의한 HBsAg 檢出成績의 報告가 별로 없다.

演者 등은 1976년 8월부터 1977년 7월까지의 肝疾患患者 117例, 慢性腎疾患患者 16例, 其他疾患 28例 및 供血者(獻血) 182例, 總 353例에 대해 HBsAg을 RIA法으로 측정하여 그 結果를 報告하는 바이다.

肝疾患, 慢性腎疾患 및 其他疾患患者 171例였으며 이들은 모두 micro-Ouchterlony法으로 HBsAg이 陰性이었으며 供血者(獻血) 182例에 대해서는 HBsAg 發見頻度를 micro-Ouchterlony, counter-immunoelectrophoresis 및 RIA法에 의해 比較하였다.

① HBsAg陽性率은 慢性活動肝炎에서 71.4%로 가장 높았으며 肝硬變症에서 60%, 肝癌에서 51.2%, 急性바이러스性肝炎에서 47.5% 그리고 慢性特續性肝炎에서 44.4%를 나타냈다.

2) 各肝疾患群에서의 HBsAg 陽性患者에 있어서 RIA titer의 平均値를 比較하면 急性바이러스性肝炎(5,012.8cpm)에서 가장 높았으며, 慢性特續性肝炎(4171cpm), 肝硬變症(3892.1 cpm), 慢性活動性肝炎(3656 cpm), 肝癌(3217.5 cpm)의 順이었다.

3) HBsAg陽性인 肝癌患者에서의 AFP가 또한 陽性으로 檢出된 例는 29.2%였으며, AFP가 陰性으로 나타난 것은 21.9%였고, HBsAg가 陰性인 患者에 있어

서 AFP가 陽性으로 나타난 것은 21.9%, AFP가 陰性인 것은 26.8%였다.

4) 慢性腎臟炎患者 16例에 있어서 HBsAg 陽性率은 56.3%였으며 그中 hemodialysis 받은 患者 6例中 4例(66.7%)에서 HBsAg이 陽性으로 나타났다.

5) 供血者(獻血)에 있어서 HBsAg 陽性率은 RIA法으로는 6.1%였으며 同一한 血清으로 시행한 CEP法으로는 3.2%, micro-Ouchterlony法으로는 2.7%를 나타내 RIA法이 約 2-2.5倍 높았다.

17. 면역학적 기전으로 생기는 몇가지 질환과 신이식 환자에서의 HBsAg과 Anti-HBs에 대한 관찰(예보)

Study of Hepatitis B Surface Antigen and Antibody among Patients with Various

Immune-Related Diseases and Renal Transplantation

가톨릭의대 내과

이오정·한명규·정규원·선희식
박두호·정환국

교원성 질환 또 몇가지 혈액질환 및 신증후군 등의 질환군은 아직까지 그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추측되고 있어 원인 규명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이식 환자에서 B형 간염 항원의 빈도 및 신이식 후의 예후에 대하여 비교 관찰한 보고가 별로 없었다. 연자들은 1969년 3월부터 1977년 8월 말까지 가톨릭의대 부속 성모병원에서 동종 신이식수술을 시행한 26예 중 추사가 가능했던 환자 20명과 신생검을 시행했던 신증후군 환자 14명,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4예 류마치양 관절염 2예, 전신성 홍반성 낭창 2예 및 기타 3예 총 45예의 환자에 radioimmunoassay(Ausria I, Ausab) 방법에 의하여 HBsAg과 anti-HBs 검사를 시행하여 흥미있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1) 신이식 환자 20예는 남자가 18예, 여자가 2예 이었고, 연령 분포는 21세부터 59세까지로 평균 연령이 38.8세이었다. 신이식 전 시행한 HBsAg의 양성율은 14예(60%)이었다. 이중에서 HBsAg과 anti-HBs가 전부 양성인 예가 1예이었고 전부 음성이었던 예가 1예 있었다. 이는 신이식 전 장기간의 혈액투석시 HBsAg의 감염과 관계된다고 사료되며 신이식 후의 예후와 HBsAg과의 관계는 관찰중이다.